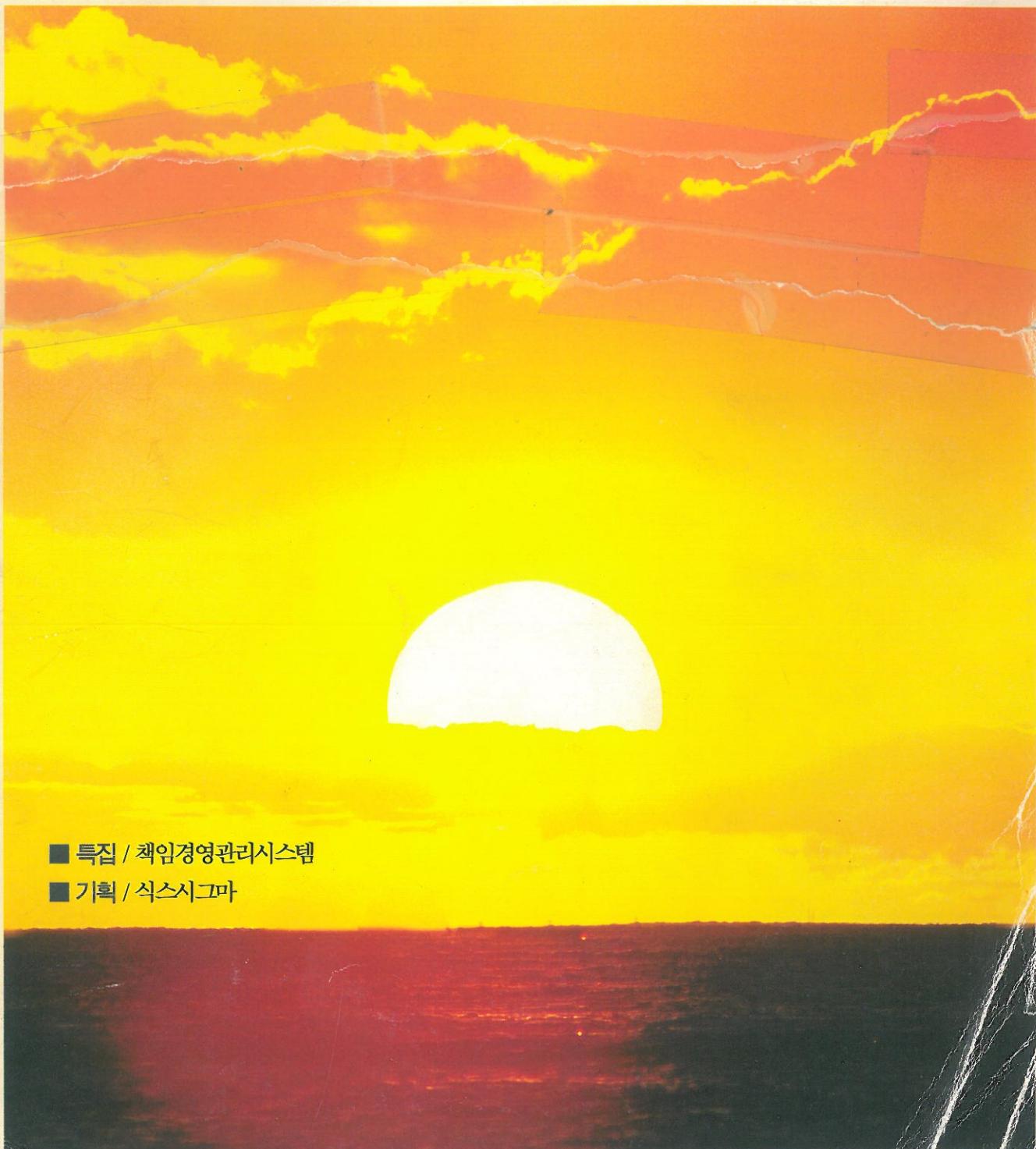


태양사보

2001
7



태양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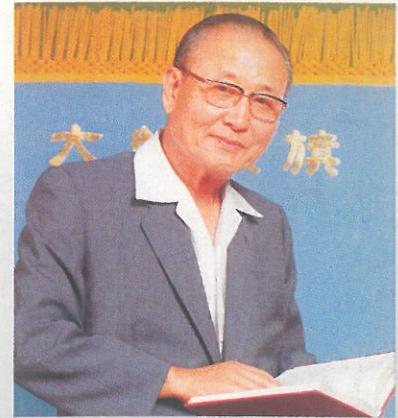


- 특집 / 책임경영관리시스템
- 기획 / 식스시그마

會長 韓恩詠

西紀五十九年七月三十日

太陽金屬의 理想
事業을 成功으로 引導하고
나아가 國家에 奉仕할것이며
恒常 善良한 生活과 豐滿한 微笑로
하기를企業體로의 길을 邁進함에 있다



한 은 영
명예회장

C 경영자 칼럼 COLUMN



한 우 삼
대표이사 사장

1987년 9월 12일 『태양주간소식』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제1호가 창간되어 10년 동안 그 맥락을 이어오던 회사사보는 IMF 위기라는 경제상황에서 1997년 10월 18일 제45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으나, 2001년 7월 1일 『태양주간소식』지가 3년 8개월만에 『태양가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보 『태양가족』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사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사원 여러분들의 작은 이야기 하나 하나가 모여 『태양가족』을 빛낼 수 있습니다. 『태양가족』은 『태양주간소식』처럼 사원 여러분의 참여 부족으로 특정인이 홀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보 『태양가족』이 특정계층의 의견이나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전달보다는 태양가족 대다수의 의견과 공감대가 투영되어, 사내 의사 소통에 기여하고 창조적 기업문화를 주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벌써 2001년 한 해의 절반인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실적은 지난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총 목표금액 412억 원에 실적 395억 원으로 95.8%를 나타냈습니다. 단조 부문만을 볼 때는 목표 366억 원에 실적 361억 원으로 98.6%였습니다. 태양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였다는 수치입니다만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95.8%와 98.6%는 조금 안타까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 하였다면 100% 이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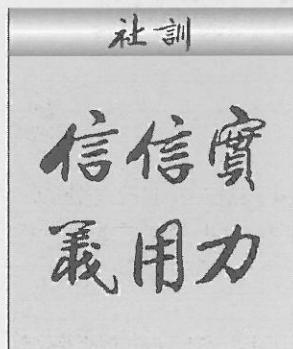
어떤 일이든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알의 과일도 한 송이의 꽃도 그 과일과 꽃을 재배하는 사람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쉽게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듯 태양금속의 목표도 사원 여러분들의 작은 땀방울 하나 하나가 모여 큰 힘을 이룰 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목표의 100% 이상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태양가족 모두가 정진하였으면 합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계절입니다. 문득 “건강은 노동으로부터 생기며, 만족은 건강으로부터 생긴다.”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여기에서 만족은 늘 명랑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절제하는 생활을 유지할 때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의 고마움은 많아 보아야 절실히 느낀다고 하였지만 태양가족 모두가 명랑한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상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분명 행복의 시작입니다. 『태양가족』 모두가 항상 건강에 유념하여 웃음꽃이 넘치는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사보 『태양가족』이 회사와 사원, 그리고 사원가족들을 한 울타리에 포함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여 태양가족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태양금속의 건강한 활력소가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태양가족

창간호
2001 7



『태양사보』 창간호

- 발행일 : 2001년 7월 1일
- 발행인 : 한우삼
- 발행처 : 태양금속공업(주)
- 전화 : 031-4905-513
- 우편번호 : 425-110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595번지
- 홈페이지 : www.taeyangmetal.com
- 편집위원 : 류영수, 최성규, 이일두
- 편집 : 이진경
- 인쇄 : 동양테크피 (031) 493-2100



동해 일출
또 다른 시작 및 희망의
상징

C.o.n.t.e.n.t.s

2 경영자 칼럼 - 대표이사 사장 인사말씀

4 특집 - 책임경영관리시스템

6 태양뉴스 - 금속산업대전참가

상급관리자 향상과정 실시

현대자동차 품질경영 체제 평가(HQRS)실시

QS-9000 품질 시스템 심사 실시

8 품질·생산·기술 - 식스시그마

9 건강도우미 - 국민체조로 즐거운 아침의 시작을 열자

10 서클안내 - 축구회, 태양빙고, 불우이웃돕기
볼링회, 탁구회, 낚시회, 산악회

11 태양가족 글마당 / 축하 게시판

12 우리아이들 이야기 - 임희수·정수형제

명상록

쇠는 쓰지 않으면 곧 녹이 슨다.

(Iron not used rusts.)

단단한 쇠도 그것이 쓰일 곳에 쓰이지 않고 버려두면 녹이 슬고,
오히려 수명이 짧아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에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뜻.
'부지런히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열지 않는다'하는 목연지(墨蓮之)의
구(句)도 이런 뜻이요, '근면(勤勉)은 건강에 좋다는 말도 이뜻을 말한 것.

책임 경영 관리시스템

회사에 이익을 주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손실을 주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조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통해 평가 결과와 보상이 공정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책임경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980년대 고도 성장시기에는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기업이나, 보통인 기업, 경쟁력이 열세인 기업도 생존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말, 특히 IMF 관리체제 이후에는 국제화의 영향과 경쟁의 심화에 의하여 급속하게 질의 경영시대와 저성장 시대로 변천되었다.

이런 때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은 생존하겠지만 경쟁력이 열세인 기업은 모두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회사의 경쟁력과 생존을 위해서는 이익을 내는 사람과 제품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처럼 실적 없는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손실을 보전해주고, 회사 전체 이익에 편승하면서 공존하는 경영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회사에 이익을 주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손실을 주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조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통해 평가 결과와 보상이 공정하게 연계되

도록 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책임경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책임경영관리시스템의 추진 방안으로

첫번째, 팀제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팀제 조직이 본래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부·과제 조직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형태에서 팀제의 실질적인 개편을 통해 임직원의 의식 개혁과 팀장의 능력 및 리더쉽을 기르고, 지식·정보 등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공유한다. 여기서 팀장은 리더로서의 능력과 리더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에는 팀장을 포함한 관리자들이 주로 통제·지시업무의 임무를 맡았었지만 이제 팀장은 의사 결정의 핵심으로서 업무는 물론 팀원의 심리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생각하는 강력한 리더쉽과 의사결정 능력 및 성과 향상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두번째, 회사·부문·팀의 목표에 핵심역량과 경쟁 우위 요소를 포함하고 비전과 전략과의 연계성을 가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장기비전과 단기계획과의 인과관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비전과 실행간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세번째, 단위 직무에 대한 정의와 단위조직의 업무 분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의 내용과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된 직무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핵심 업무, 핵심평가항목, 핵심평가지표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직무분석의 단계로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① 담당요원의 설정 및 교육, 직무분석에 대한 구성원들의 협조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단계, ②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직무현황 분석 및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추출을 통한 자료의 체계화와 확인 작업 과정인 본단계, ③ 마지막으로 직무분석을 토대로 일정기준에 맞게 유지·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된다.

네번째, 목표설정이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입각하여 부문, 팀 차원의 전략과 목표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가 각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전사적인 경영방침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번째, 목표에 대한 성과 평가이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인사 평가가 아닌 인재 육성형 평가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며 목표 성과를 어떠한 성과지표로 파악하고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모든 성과지표는 계량화하거나 실제 사내에서 나타나는 직무 행위와 관련된 바람직한 사례를 구체화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여섯번째, 평가의 활용이다.

평가의 결과는 보상의 측면으로는 급여와 연계한 활

용이며 육성의 측면으로는 평가 과정을 통해 피평가자의 능력개발 포인트 제시, 교육훈련, 직무배치 등 인재육성 계획의 기초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개인의 성과가 커지면 조직의 이윤증대로 이어지며 또한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연계되어 보다 큰 개인의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의 원천이 되므로 회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해 피드백 면담 과정을 거쳐 조직원들의 경영성과 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도록 면담을 활성화하여 완성된 책임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팀장은

강력한 리더쉽과 의사결정 능력 및 성과 향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금속산업대전 참가 (KOREA METAL WEEK 2001)



△ 금속대전에 참가한
김용기부장(왼쪽부터),
품질보증팀 지윤애시원,
해외사업팀 강은혜사원

Fastener Cable & Wire Korea 2001에 참가하다.

(제7회 국제 볼트·너트·케이블 및 와이어 산업전)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01년 금속 산업대전(제7회 국제 볼트·너트·케이블 및 와이어 산업전)』이 개최됐다.

이번 산업대전은 국내외 볼트·너트·케이블 및 와이어/주조·단조·공업로 및 열처리/튜브 & 파이프/다이캐스팅 등의 비교 전시를 통한 기술 향상 촉진과 국내외 바이어 유치 및 수출의 판로 개척, 국내외 업체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 협조 체계 구축, 이를 통한 관련사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당사를 포함한 54개 동종업체와 총 20개국 300여 업체가 참가 하여 그 어느해 보다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이번 금속산업대전을 통해 당사는 국내 볼트·너트 생산업체중 최고업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으나, 볼트·너트 생산이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상급관리자 능력향상과정 실시

책임경영·투명경영을 위한 정신교육과 직급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급관리자 능력 향상 과정』이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와 6월 1일부터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천인력개발원(인천 송도 소재)에서 실시됐다.

5급 이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책임경영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요 설명과 외부 강사의 특강이 있었다.

김선한(위캔컨설팅 대표) 강사는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고 및 의식개혁에 대해 강의 하였으며, 주동식(현대자동차 교육연구실 교수)은 "책임경영을 위한 관리자 리더쉽 향상"이라는 주제로 리더쉽의 중요성과 리더쉽 개발 방법에 대해

강의 하였다.

또한 김규환(대우중공업 창원공장 근무) 강사는 "목 숨걸고 일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자기분야에 있어 명장이 되기까지의 삶과 바람직한 직장인의 자세에 대해 열변을 토하였으며,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교육 시작에 앞서 한우삼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 과정이 책임경영 체제 정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당부 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당사 간부사원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회사경영에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자동차 품질경영체제 평가 (HQRS) 실시

지난 6월 12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대자동차 품질경영체제평가(HQRS)」 가 실시되었다.

금년도 부터 현대·기아는 국제경쟁력 있는 부품 품질 확보와 부품업체의 정예화, 전문화를 기하고 협력업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업체 신평가제도(TAS 2001)를 도입하였다. 신평가제도는 실적과 체제 2가지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기존의 체제 평가로서 당시는 품질계획관리, 품질시스템, 외주부품관리

등 10개 평가항목 2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품질경영체제 평가 목적은 부품업체 평가를 통한 제품 및 공정, 서비스의 계량화된 실행 수준 파악과 요구목표 품질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개선 및 CLAIM 절감 유도인 바, 이번에 지적된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차후 평가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사항 : 협력업체 신평가제도(TAS 2001)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주기
실 적	품 질	입고불량율, Field 불량율, 품질문제개선, 캠페인	분기
	납 기	라인결품, 품번/수량 착오, 보수용 부품 납입율	분기
	원 가	원가절감 달성을율	2회/년
	6시그마 추진실적		분기
체 제	품질경영 체제평가 (HQRS)	1) 품질계획관리 2) 품질시스템 3) 정보/환경 4) 제품개발 5) 외주부품관리 6) 양산공정관리 7) 검사/시험 8) 교육훈련 9) 출하/서비스 10) 지속적개선	1회/년

QS-9000 품질시스템 심사 실시

당사는 지난 5월 3일에서 4일까지 2일에 걸쳐 국내 인증 기관인 한국품질재단 한국 품질인증센터 (KFO : Korean Foundation for Quality)로부터 「QS-9000 품질 시스템」에 대한 제4차 사후관리 심사를 수검하였다.

1999년 6월 본심사를 수검하여 인증을 획득한 이후 1999년 11월 1차 사후심사, 2000년 5월 2차 사후심사, 2000년 10월 3차 사후심사, 2001년 5월 4차 사후심사를 수검, 어느덧 2년이란 기간이 경과하였고, 금년 11월에 5차 사후관리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02년 5월에는 3년마다 인증서 갱신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각 부서가 갱신심사 수검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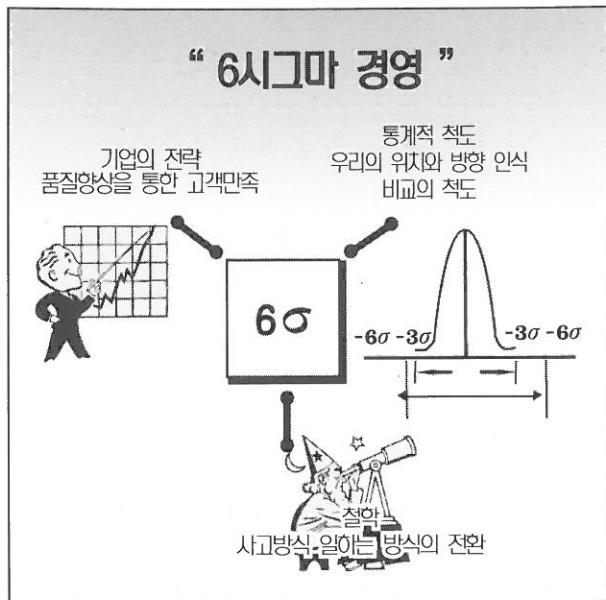
금번 사후관리 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9건(경부적합 사항 7건, 관찰사항 12건)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업무가 유효하게 실행되고 실행된 결과가 문서로 기록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유사공정 및 유사제품에 시정 조치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미흡하며 생산 현장 자주 검사 상태의 LEVEL-UP과 효과적인 실시가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어 해 설

- 경부적합 : 시스템 요구사항 중 객관적 증거 수집이 곤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 관찰사항 :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회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모순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스시그마(6σ)란?



1987년 미국의 모토롤라에서 혁신적인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탄생한 식스시그마는 미국의 GE(95)나 Allied Signal(94), IBM(90), Texas Instruments(88), 일본의 SONY(96), WEC(98), TOSHIBA(98) 등과 같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들이 채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 기업 경영전략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삼성SDI(97), LG전자(98), 한국중공업(97), 삼성전자(99), 현대·기아자동차(2000)등에서 도입 후 품질혁신에 기여하면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입의사를 검토 추진중에 있다.

이런 식스시그마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아래 시그마(6σ)라는 통계척도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업무 등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품질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문제해결 과정 및 전문가양성 등의 효율적인 품질문화를 조성하며,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종합적인 기업 경영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식스시그마는 단순히 공장중심의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식스시그마는 기업의 전반적인 품질(영업, 개발, 생산, 사무 등)향상을 통한 총체적 고객만족이라는 전사적 실행의 종합적인 "기업전략"이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손실을 제거하고, "열심히 일하기(Working Harder) 보다는 현명하게 일하자.(Working Smarter)"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Do it right at the first time)"라는 효율적 품질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철학"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계적 의미로 볼때 100만개 중 34개의 결함을 의미하는 "통계적 척도"로서 통계학에서 데이터의 산포(흩어짐)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편차(그리스 문자 : σ)로, 결함이나 실수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Process)의 능력과 질을 정량화한 값을 의미한다.

식스시그마가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과거의 많은 국내 기업체들이 품질혁신 운동으로 전개해 왔던 "무결점 운동"이나 "100 PPM운동"과 같이 제조 현장이나 제품중심의 품질개선 운동으로 인식하기도 했으나, 실제 선진기업에서 성공한 식스시그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식스시그마를 도입하는 기업은 특히 식스시그마에 대한 의의와 개념, 지향하는 목적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식스시그마는 일회성 경영개선 운동으로 그치고 말수도 있다. 특히, 당사의 최대 고객인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협력업체 품질수준 제고와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식스시그마 경영혁신 전략을 채택하여 제품개발, 중요 불량개선시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합평가시에도 높은 점수(15점/100점)를 배점하고 있다.

그러나 식스시그마와 같은 경영혁신 전략의 도입은 고객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변화와 혁신에 대한 내부 필요성에 의해 더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것이 당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 품질보증팀 박현희 과장 -

국민체조로 즐거운 아침의 시작을 열자.....

국민체조 이렇게 시작되었다.

국민체조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체조를 생활화하여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한다는 국민의식 전환용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사실 국민체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실시대상에 따라 운동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체조내용이 맨손체조 이지만 운동량이 많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우리 회사의 경우 아침 출근길의 경직성을 풀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조 후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 교환을 통해 즐거운 아침의 시작을 상호간에 나누자는 취지로 1970년대에 국민체조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운동이 최고의 건강 지킴이 ~~.

국민체조를 함으로써 근육의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근 지구력 및 유연성이 향상되며, 폐활량이 증가하여 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운동부족과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은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운동을 하면 대사 작용에 소비되지 않는 지방이 신체 각 조직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비만이 해소 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노화 정도가 감소되어 몸의 노화속도를 늦추어 주며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조는 신체 각 부위의 운동을 포함하여 신전운동(근육이완운동)이 많으므로 굳어버린 나쁜자세를 교정하고 불균형한 신체발육을 교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국민체조는 위와 같이 근력의 기능 향상, 비만 예방 등 많은 효과가 있다. 개인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아침의 시작을 나누는 국민체조에 태양 사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 건강관리실 전보현 --

웃음이 있는 곳

아내의
변신
3단계

- 반찬 투정 … 애 하나일 때 “맛 없애 네 기다려봐, 맛난 것 만들어 줄께”
애 둘일 때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아들도 아니고”
애 셋일때(투정부린 반찬을 확 걸어가며) “배 불렀군!”
- 돈에 관한 가치관 … 애 하나일 때 “많으면 뭘 해, 돈은 조금 부족한 듯 한게 좋아”
애 둘일 때 “돈돈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
애 셋일 때 (월급 명세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일부터 굽어”
- 감기 걸린 남편을 대하는 태도 … 애 하나일 때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가 안심하죠, 약 드세요.”
애 둘일 때 “반새 술 푸고 출당배 피는데 안 아픈게 용한 거지.”
애 셋일 때 (콧물 흘리는 소리만 들려도) “애들한테 물기면 죽을 줄 알어”
- 패션쇼를 바라보는 태도 … 애 하나일 때 “한때야, 한때, 유행이란 금방 시들해지는 걸 봐”
애 둘일 때 “자런 옷 입는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낸을 꾀”
애 셋일 때 (자기 어버지 대바늘로 쭉쭉 찔러대며 혼자 증얼거린다)
“어후 내딸지야, 모든게 내 탓 이로소이다, 내탓”

상록수 축구회

일요일 주말에 빈동빈동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매주 : 일요일 정기모임
- 장소 : 선부중학교
- 시간 : 오전 9시30분
- 월회비 : 10,000원
- 문의 : 회장 이종로(688)

태양볼링클럽

스트레스 해소 100% 팍팍 소리에 속이 시원하다. 스트레스 해소를 보장하는 블링회로 오세요..

- 매월 :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 장소 : 선부동 볼링장
- 시간 : 오후 6시 □ 월회비 : 10,000원
- 문의 : 회장 이두원(536)

태양 빙고

컴맹 No! 게임엔 Yes!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
태양 빙고가 있습니다.

- 매월 : 둘째주 금요일
- 월회비 : 10,000원
- 문의 : 회장 강문호(541)

불우이웃돕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되고 싶으신 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만 오세요...

- 매주 : 둘째주, 셋째주 토요일 중
- 장소 : 사랑선교 수녀원, 평안네 집
- 시간 : 오후 3시20분 □ 월회비 : 3,000원
- 문의 : 회장 김찬수(658)

태양 탁구회

작은 공 하나로 삶에
활력을 찾을수 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기회 만점의 탁구회

- 매월 : 둘째주, 셋째주 수요일
- 월회비 : 5,000원
- 장소 : 회사 탁구장(오후6시)
- 문의 : 회장 최동각(715)

태양 낚시회

잠시 쉬고 싶다고요....
일에 지쳤다고요
그럼 낚시회에 가입하세요..

- 매년 : 매월 첫째주 일요일
- 연회비 : 30,000원
- 문의 : 회장 이일주(656)



※ 회사에 등록된 서울만 기재함

6월7일 오전7시30분 상록수역에서 대둔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35명이 참가한 이번 산행에서는 특히 산행도중에
다섯 명이 충청도와 전라도로 잠시 이산가족이 되어 서로가
마음을 조렸지만 침단 전화기 덕분에 곧바로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회사일로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산행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들은 다음 산행에는 꼭 참가하여 산행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매년 : 12회 이내 정기등정
- 월회비 : 남)5,000원 여)2,000원
- 문의 : 회장 차용수 (530)

▷ 엽서는 구내식당처 엽서함에 넣어주세요!

“태양가족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원·고·를·기·다·립·니·다

1. 이번호에 아쉬운 점은?

2. 내가 편집자라면.....?

부서명 :

이름 :

또
다
른
이
름

품질보증팀
최성규 대리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것들은 이탈하기 이전
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건 새로운 이름
을 부여 받는다. 가령 내식구에게 있어 강철보다 단단한
생명 줄인 작업복도 뺏밟한 노동의 궤도를 이탈, 표백제
한 스플과 몸을 비비고 나면 부끄럽게도 하얗게 빛나는 빨
래가 된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날개가 된다. 날개는 또 어
떠하랴 날개는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관찰하는 수평, 오만
한 비상보다 아름다운 저울이다. 저울은 가끔 빠풀어지게
진화하는 세포들을 중심에서 일으켜 세운다. 사다리처럼
영혼을 하늘에 매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다시 나를 일으
켜 세우며 사람으로 살아가게 떠미는 약속인 것이다.

축하 게시판

생일 “축하합니다”

▲ 설비보전 최기성 (7. 1)

강구생산 진희숙 (7. 5)

검사실 김석문 (7. 5)

표면처리 이병규 (7. 7)

제품관리 박영석 (7. 8)

개발팀 윤철호 (7. 8)

영업관리 양승원 (7. 8)

동박TFT 하승렬 (7. 8)

동박TFT 임낙옥 (7. 9)

영업관리 이상만 (7.10)

영업 1팀 조미옥 (7.14)

제품관리 김광수 (7.15)

동박TFT 하승엽 (7.16)

강구생산 최현주 (7.17)

영업 1팀 진정일 (7.22)

개발팀 송태엽 (7.23)

영업관리 김재황 (7.24)

열처리 김운한 (7.25)

제품관리 윤원상 (7.26)

강구생산 임양호 (7.28)

동박TFT 이용철 (7.29)

생산 6반 안정식 (7.30)

안전환경 서정수 (7. 4)

영업관리 김경자 (7. 6)

강구생산 김종훈 (7. 6)

표면처리 김용식 (7. 7)

설비보전 양희섭 (7. 8)

영업 2팀 김성욱 (7. 8)

생산 5반 오현진 (7. 8)

기획팀 박정덕 (7. 8)

생산 3반 이진섭 (7. 9)

설비보전 이동우 (7.10)

영업관리 이동화 (7.11)

생산 5반 황정필 (7.15)

생산 3반 신영수 (7.17)

영업관리 우경구 (7.18)

안전환경 조윤호 (7.22)

표면처리 임표택 (7.22)

품질보증 한상문 (7.24)

해외사업 강명석 (7.25)

생산 2반 이상돈 (7.25)

동박TFT 김철진 (7.27)

생산 6반 오세성 (7.29)

열처리과 안철민 (7.30)

개발팀 추연근 (7.31)

결혼 “행복하세요”

▲ 기술개발팀 최 광 석 대리



최광석대리님의(6월6일) 결혼을
무지무지 추카해요.
이쁘고, 깨찍하고, 사랑스러운
색시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는 시세용.
태양가족 일동요.

결혼 “축하합니다”

▲ 생산관리팀 조 진 수 사원 (7월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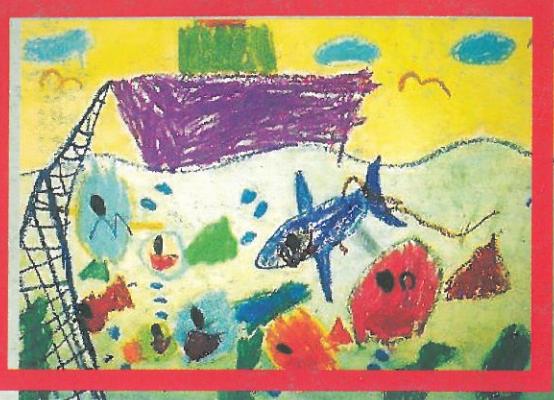
▲ 품질보증팀 정 경 옥 사원 (7월8일)

▲ 해외사업팀 이 성 태 주임 (7월8일)

우리 아이들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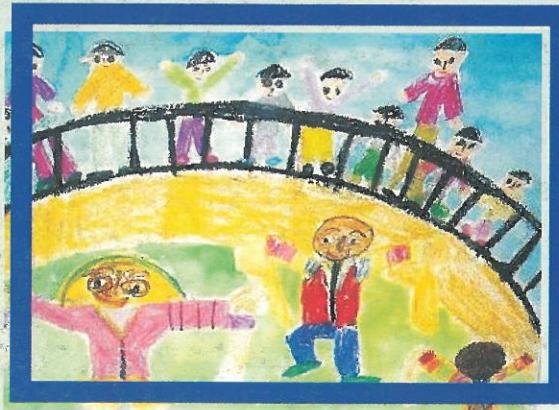
정수의 크고 작은 희망!

정수의 장래희망은
LG트윈스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아빠와 야구경기장에
갔다와서 야구선수들이
무지 멋지다고
생각 하나 봅니다.
항상 귀엽고 장난기
많은 정수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난 멋진 경찰관이 될거야"

휘수는 아빠랑 정수랑
함께 축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휘수는
경찰관이 되어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10살이라는 나이에도
참 의젓한 휘수입니다.
휘수의 꿈이 이루어지길
저희는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휘수, 정수에게

힘이

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아파도 아픈줄 모르며,
너희들의 맑고 밝은 모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있다.
아빠의 바램은 언제나 변함이 없단다.
우리 휘수, 정수가 항상 건강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란다.
때로는 지나친 나의 사랑이 너희들로 하여금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더 나은 너희들의
미래를 위함이라고 변명하고 싶구나!!!!
휘수, 정수야 언제나 기억해 주길 바란다.
너희들은 아빠의 소중한 보물들이라는 것을....
사랑한다. 아들들아... ^.^

〈구매팀: 임종석 과장〉